

화순, 추석연휴 고인돌유적지 관람오세요

16~18일, 3일간 한시적 차량 통행 허용

화순군은 추석연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인돌유적지 내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인돌유적지 내 차량 통행 한시적 허용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출향인 등 화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자가용으로 유적지 곳곳을 편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석 맞이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한다.

화순군은 세계유산 고인돌의 보존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곡면 고인돌 안내소 ~ 춘양면 고인돌 안내소 구간의 일반 차량 통

행을 제한하였으나, 추석 연휴 3일간에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윤재관 고인돌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화순고인돌유적지 관람을 통해 수천 년 전의 문화를 경험하고, 기억에 남을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위해 10ha 면적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맨드라미, 메밀 등을 식재하였으며,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화순고인돌유적지에서 개최된다. /화순=주영현 기자

나주 세지농협, 전남 유일 APC 공모사업 선정 쾌거

선별유통시설 신축... 60억원 투입 2026년 준공 예정

'세로이벨론' 브랜드로 유명한 나주 세지농협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단계별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전남 1곳을 포함해 전국 15곳이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세지농협은 세지면 내정리에 연면적 2220㎡ 규모의 선

별유통시설을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비 18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2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세지농협은 전국적으로 브랜드 명성이 높은 벨론을 재배하고 있으나 유통시설 처리능력 한계로 출하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첨단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갖춘 선별유통시설이 완공되면

출하량 증가로 세지벨론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상 세지농협조합장은 "벨론 유통시설 구축을 위해 4년을 달려왔다"며 "현재 세지벨론 출하액은 19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농가와 농협이 적극 협력해 2029년까지 350억원 규모, 농가 1인당 소득 3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APC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윤 시장은 "이번 시설 구축을 통해 나주 대표 특산물인 벨론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산지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산지 APC 신축·보수, 선별기 설치, 저온저장고·저온차량, 농가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유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주=허필수 기자

영광, 내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미래모빌리티 충돌안전 부품 기반구축 등 160건 발굴

영광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정선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광군 미래발전을 실현하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160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발굴시책은 ▲미래모빌리티 충돌안전 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4색 4안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탄소중립 미래농업수도 영광' 육성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 ▲명품 복숭아 시설재배 수출 전문단지 육성 등으로 미래 동

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발굴됐다.

또한 ▲파크골프장을 연계한 자연휴양림 조성 ▲덕흥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 ▲지능형 경로당 구축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시책들도 제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시책들은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예산 반영 등 검토를 거쳐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선 군수 권한대행은 "군의 주요시책은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회진 급경사지 정비사업 97억원 확정

행안부 주관 '붕괴위험지구 공모사업' 선정



장흥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붕괴위험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97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회진면 회진리(회진버스터미널~송약곡)에 위치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이번 공모에 신청했다.

회진 시가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급경사지에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대 위험 수목이 자라고 있고,

주택 뒷편으로는 낙석이 발생하고 있었다.

2021년 7월 폭우 시에는 일부 사면 붕괴가 발생하는 등 급경사지의 재해 발생 징후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거지 편입에 따른 이주토지 확보가 어렵고, 낮은 보상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5% 추가 적립

담양군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올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특정가맹점에서 담양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QR) 1000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적립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지류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결제 시에만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군은 기존 담양사랑상품권의 선할인 정책과 동시에 진행해 소비자가 정책을 조금 더 체감하고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추가 적립 대상 가맹점은 담양군 착한가격업소 14곳과 담양읍 중앙로와 메타프로방스 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일부 가맹점 100여 곳이다.

특히 중앙로 또는 메타프로방스 내 가맹점이자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담양=강성국 기자

전국 최대 상사와 군락지에서 즐기는 주요 프로그램

- 상사화 소원의 길
- 상사화 산사 음악회
- 상사화 꽃길걷기
- 상사화 대학가야제
-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 상사화 세계 문화 퍼레이드
- 상사화 달빛야(夜)행

전라남도대표축제

영광방문의해

불가산

제24회 영광 불가산 축제

2024. 9. 13.(금) ~ 9. 22.(일) 영광 불가산 관광지 일원

주최/주관 : 영광불가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문화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영중앙교회, 영광축협

화순, 귀농산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잔결음

주민 의견 모으기 위한 마을 간담회 개최

화순군은 지난 9일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참여 마을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의지를 다졌다.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지역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마을 내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 경관 조성 및 재능기부, 마을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청풍면 백운마을과 동면

대암마을이 '202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마을별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귀농인과 마을 이장,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청풍 백운마을은 마을 입구를 중심으로 백일홍과 철쭉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밥상 나눔' 마을 축제 개최를 예정이다.

백운마을 정회갑 위원장은 "내년

봄에 꽃이 피면 마을이 한결 화사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면 대암마을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길가에 블루엔젤 등 꽃모종을 심어 마을을 꾸미고, 주민 간 '꽃나누기' 행사로 정을 쌓아가기로 했다.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과장은 "주민들이 함께 토의하고 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마을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주영현 기자

함평, 모악산 치유산책로 조성... 힐링 관광지로 발돋움

황토맨발길·물치유공간·지압로·쉼터 등 친화적 공간

함평군이 최근 준공된 모악산 치유센터와 연계해 치유산책로를 조성하며 힐링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치유산책로는 약 0.5km 구간의 맨발 흙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꽃과 함께 조성된다. 또한,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자연 속에서 풍욕을 즐길 수

있는 물 치유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명상 쉼터와 지압로 등의 시설도 설치해 방문객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치유산책로가 12일부터 15일까지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꽃무릇 붉은 물결, 함평에 깃들다'를 주제로 한 제25회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의 주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치

유산책로를 걸으며 꽃무릇의 붉은 물결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모악산 치유산책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평군의 관광 매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치유산책로 조성을 통해 함평군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며,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성, 지역 중소기업에 3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금융지원'

저금리 대출·우대보증 혜택

장성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총 3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행정안전부·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점이다.

대상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며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규모다.

약정금리의 2%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기존 이자보전지원사업 대상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장성군의 추천서를 받아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금융지원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